

江華 歷史觀 展示衣服 復元에 관하여

張 仁 又

目 次

I. 序 言	○ 朝鮮中期의 兵馬節度使의 衣服
II. 高麗時代	○ 朝鮮中期 軍卒의 衣服
○ 彫刻工의 衣服	○ 朝鮮末期 堂下官 文官의 冠服
III. 朝鮮時代	IV. 復元課程에서의 問題點

I. 서 언

본 보고서는 '88년 9월 14일 개관한 강화역사관에 전시된 의복의 복원에 관한 것이다. 전시되는 의복은 강화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고려시대 조각공의 衣服一襲, 조선중기 병자호란 당시 師團長格인 從二品 兵馬節度使 갑옷一襲과 軍卒衣服一襲, 조선말기 堂下官 正三品 通天大夫의 冠服一襲등이다.

衣服은 現時性을 갖는 문화의 한 요소인 시각적 表現이다. 따라서 복원에 있어서도 그 시대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문헌과 당시의 유물조사를 통하여 고증하고, 그 제작과정에서도 의복의 형태·염색·재질·봉재법등을 가능한 한 과거의 것과 同一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전반적인 제작과정에 있어서는

i. 크기는 유물의 크기보다 약 1.1배 크게 제작하였다. 이는 신장 170cm의 마 네킹을 기준으로 하여 임진왜란 당시 성인남자의 신장을 150cm로 추정하여 그 비율을 적용시켰다.

ii. 재질은 무명·명주·생명주·모시는 과거의 굵기·폭과 유사한 것을 가능한 사용하였고, 문양이 있는 것도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iii. 마름질은 찻쌀풀을 먹인 후 다듬이질 하여 흥두께에 올려 과거의 방법 그대로 실행하였다.

iv. 염색은 각 재료의 Sample Test를 통하여 천연염색을 실행하였다 -황색일 경우 치자, 울금, 황벽, 녹색은 쭉, 검은색은 먹등-.

v. 봉재는 모두 손바느질하였다. 명주의 경우 호아서(반박음질) 인두질하였다. 과거(조선중기) 유물의 봉재가 거의 반박음질로 되었으며, 그 시점은 약 0.5cm 크기이었다. 따라서 이에 준하여 바느질하였다.

vi. 각 복원복에 사용되었던 직물은 <표 1>과 같다.

ㄱ) 모시(고려시대 조각공 의복)

ㄴ) 울금 염색된 장지문양단(갑옷의 겹감)

ㄷ) 먹으로 염색된 명주(군졸의 전복)

ㄹ) 밤염된 명주(갑옷의 받침 가천릭)

ㅁ) 소색 명주(문·무관의 바지·저고리) 갑옷의 안감·천릭의 안감)

ㅂ) 쪽염된 주향라(관복의 겹감)

ㅅ) 청색 주향라(관복의 안감)

II. 고려시대

○ 彫刻工 衣服 <사진 13> <복원도 1·2>

조각공의 의복은 그 착용시대와 조각공의 신분에 대해서 '77년 발간된 동국대학교 강화도 학술조사단, 《江華島學術調查報告書》〈강화전사유적 보수정화지〉中 江都時代의 文化에 「大藏經 雕板…현종때 대구 符印寺에서 불타버리자 고종 22년(1235)에 다시 대장경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대장경 조판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당시의 외적 몽고군의 침략에 부처님의 법력을 빌려서라도 조국을 수호하자는 고려시대의 군신(君臣)들의 일치된 힘으로 추진했으며 이 사업의 담당부서인 大藏都監을 강화의 禪源寺에 설치하고 分詞를 진주에 두었으며, 經文의 校勘(고려때 秘書省에 두었던 종9품벼슬)에는 開泰寺의 승통이던 수기(守其)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대장경조판에 있어서 經文에 승려 수기(守其)가 관장하고, 그 조각에 있어서는 승려 특히 재가화상과 일반서인(庶人)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강화역사관에 전시될 조각공의 의복은 당시 강화도민이 대장경조판에 승려들과 함께 참여한 것에 의미를 두어 조각공의 의복을 승려계급중에서도 재가화상과 서민의 복장으로, 즉 저고리(布襦), 바지(袴), 모자(皂巾), 허리띠(帶), 행전(跋), 버선(襪), 미투리(草履)등이다.

고려시대의 복식유물은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소저포(素紵袍) 뿐으로 유물을 통한 당시 복식형태의 추정이 어렵다 그러므로 고려말 복식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¹⁾ 조선초기에 편찬된 악학궤범(樂學軌範)의 도판을 응용하였다. 남저고리(藍赤古里)의 구성비율-저고리길이에 대한 각 부위의 비율-로 저고리를 제작하였다. 시대별 저고리길이의 변화 및 신장 170cm 마네킹을 고려하여 저고리의 길이를 75cm로 정하였다. 그 제작순서는

i. 저고리

- ① 소매와 끝동을 연결하고, 시점은 소매쪽으로 처리한다.
- ② 소매의 앞·뒤를 옆무를 연결시키고 시점은 가름솔로 처리한다.
- ③ 길과 소매·옆무를 연결하여 소매쪽으로 처리한다.
- ④ 뒷길을 연결하여 솔기를 오른손쪽으로 처리한다.
- ⑤ 앞길에 안섶과 겹섶을 연결하여 안섶의 솔기는 길쪽으로, 겹섶의 솔기는 섶쪽으로 처리한다.
- ⑥ 깃을 단다.
- ⑦ 안고름과 겹고름을 단다.
- ⑧ 밑단은 1번감아 공구르기 한다.

ii. 바지

- ① 작은사폭과 큰사폭은 연결한 후 큰사폭의 시점으로 싹솔처리한다.
- ② 사폭과 마루폭을 연결하고 통솔처리한다.
- ③ 배례는 통솔처리한다.
- ④ 허리를 달아 시점을 허리쪽으로 처리한다.
- ⑤ 허리의 끝과 바지부리를 1번감아 공구르기로 끝처리 한다.

여기서 저고리는 고복남의 《韓國傳統服飾史 研究》 광해군의 옆트임 저고리(衫兒)의 제도와 치수를 인용하여 겹으로 제작하였고, 위의 책 金德遠公의 바지의 제작과 치수를 응용하여 소색명주로 제작하였고 군졸의복 가운데 저고리는 위의 책에서 국립박물관 소장 무명 겹 저고리의 제도와 치수를, 바지는 김동욱·장인우 <출토유의 및 근대복식근고(II)> <임란·전후 전주이씨 출토유의>의 삼베홀 바지의 제도와 치수를 인용·제작하였으며, 갑옷은 충청남도 서산에 보존되어 있는 정충신장군의 깃을 유물조사를 통하여 제작하였다.

III. 조선시대

○ 兵馬節度使 衣服과 軍卒衣服 一襲 <사진 14·15> <복원도 3>

병마절도사 의복에는 갑옷, 釘甲·천익(天翼)·저고리(赤古里)·바지(把持)·허리띠(帶)·행전(跋)·버선(襪)·신(靴), 군졸의복에는 전복(戰服)·바지(把持)·전모(氈帽)·허리띠(帶)·행전(跋)·짚신(草履)등이다.

여기에서는 병마절도사의복가운데 갑옷은 병자호란 당시의 복장으로 실물유물 중 그 시대가 가장 유사한 정충신(鄭忠信)장군의 갑옷을 복원하기로 하였다.

註 1) 고복남, 한국전통복식사 연구 일조각

갑옷에 대해서는 이강칠(李康七)의 「韓國의 甲冑」李美娜(李美娜)의 「갑옷에 대한 연구」, 김정자(金正子)의 우리나라 上代の 甲冑에 대한 연구」 등의 선연구자의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따라서 갑옷의 개념·종류·제작·재료·색등에 관한 일반적인 것은 선연구를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이강칠은 군전복(軍戰服)에 있어서 각 방위에 해당하는 색상이 靑·白·赤·黃·黃의 五方色으로 분리되는데 이는 前衛·左衛·右衛·後衛·中軍으로 되어 착용되며, 갑옷은 크게 ①전쟁터에서 입을 때 ②실전을 대비하여 훈련할 때 ③의식을 행할 때 등 3시기로 나누어 착용되며, 정충신의 갑옷은 인조대왕이 출정시 하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였다.

따라서 정충신의 갑옷은 한자로는 甲이라 할 수 있고, 늦쇠징이 박혔으므로 종류는 두정갑이고, 갑옷의 색이 황색이므로 정충신이 中軍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인조대왕이 하사한 것으로 전쟁터에서 입는 갑옷임을 알 수 있다.

이미나는 한국의 갑옷양식 가운데 조선시대의 두정갑을 「깊게 파인 U字形의 의 깃에 합입식의 직배례인 袍形으로 곁감은 氈이고, 心地는 무명을 누볐으며, 안감은 명주를 댔고 그 위에 5×6cm 정도의 철편을 연결시켰다」라 하고 대부분의 갑옷은 「합襟의 袍形으로 직배례이었으며, 양옆과 배례, 뒤가 트였고 소매는 팔꿈치 아래로 내려온 정도에 전체적인 길이는 무릎아래에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재질에서 곁감은 거의 전(氈)을 사용하거나 혹은 綿·絹織을 썼으며 심지어는 무명을 두겹 누볐고 안감으로는 명주·무명을 댔다 깃에는 털이나 澤葉·꽃문양·絹織物을 덧대어 장식하였다.」 한다.

여기서 이미나의 일반적인 갑옷의 형태와 정충신장군의 갑옷의 것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재료에 있어서도 곁감에 전(氈)대신 단(緞)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3겹의 무명을 누볐고, 깃은 가죽으로 한 것으로 그 특징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충신장군의 갑옷은 합입(合襟)의 袍形이며 소매가 직배례이고, 팔꿈치 아래로 내려오고, 뒤가 트인점등은 일반적인 갑옷의 형태와 일치하나 앞에 쇠이 달리고 양옆을 트지않고 무릎 달은 점은 일치하지 않는다.

정충신장군 갑옷의 유물조사는 다음과 같다. 갑옷을 구성하는 재질에 있어 이강칠은 「韓國의 甲冑」에서 “곁감은 黃色 雲紋緞이고, 안감은 赭黃色 瑞雲이 施文된 雲寶緞이고, 심지어는 무명 3겹 ”高福男은 「韓國傳統服飾史研究」에서 “목면을 여러겹 배접한 위에 넓은 청색비단을 입히고 거기에 군데군데 원형의 징을 박은것”이라 하였다. 정충신장군 갑옷을 복원하기 위한 본인의 조사의 의하면 곁감은 황색의 장지화문단(사진 1)이었으며, 여기서 본인은 황색을 전통 염색한 Sample과 비교한 결과 울금으로 염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안감은 소색의 평직 명주(사진 2)이었고, 심지어는 밀도가 39×30/1"의 무명 3겹을 약 2cm간격으로 누볐고 누비바느질의 간격은 6~7땀/1"이었다(사진 2) 갑옷의 형태는

포형(袍形)으로 앞중심에는 섶이 연결되어 여미게 되어있고 뒷중심은 트여 활동에 편하게 구성되었다. 깃은 합임이며 2부분으로 구성되어(사진 3) 윗부분(上)은 목을 둘러싸는 부분이며 겉은 갈색가죽인데,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으나 본인은 사슴가죽이 아닌가 싶다. 깃의 안은 갈색운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안깃의 안부분은 소색명주와 푸른색 명주(쪽염된)의 조각을 겹쳐 연결하여 심의 역할을 하게 구성되었다. 아랫부분(下)은 여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부위(사진 4)로 갈색가죽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소색가죽으로 된 단추가 2개 달려 있으나 3개가 달렸던 것이 1개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추는 고리와 매듭으로 이루어 졌으며, 중앙의 단추는 2개의 매듭을 끼우는 고리(사진 5)로 하단(아래)의 단추는 1개의 매듭을 끼우는 고리(사진 6)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소실된 부위의 단추형태를 여기서의 하단의 단추와 같은 것으로 정한다. 길깃의 가죽부위는 소색의 명주로 박음질하여 연결하였다. (사진 7)

소매는 직선소매로 구성되었고 길(胴)과 연결된 부위(35cm)에서 끝동으로 갈수록 넓게 구성되었다. 소매에서의 특징은 소매의 끝부분에 가죽으로 Piping (선)을 대어 그 끝처리를 견고하게 하였다. (사진 8)

무는 뒤(20cm)가 앞(18.5cm)보다 약 1.5cm정도 넓게 구성되었고 심지에서 앞의 무(襠)의 시접이 뒷누비사이로 삽입되어 옆선을 이루고 있으며, 누비의 방향은 사선에 평행하게 누벼졌다. 섶은 좌·우가 대칭으로 구성되었고 심지에서 누비의 방향은 사선에 평행하게 이루어졌으며 섶의 시접이 길(胴)의 누비사이로 삽입되어 연결되었다. 뒤는 직선으로 구성되었고 뒷중심 중앙아랫 부분을 트여 활동에 편하게 구성하였다. 견철장식이 어깨에 달려있으며, 이 견철의 모양은 말매미형(사진 9)이고, 재질은 5mm두께의 쇠로 이루어졌고, 이 견철은 두부분이 경첩으로 연결되었고 수컷의 경첩에 청동리벳 2개가 갑옷과 연결되었고 수컷의 끝은 마감(전처리)되었고, (사진 10) 견철의 표면은 2mm원형으로 정작업(Stemping)되었다.(사진 11)

징은 놋쇠(鑄鐵)로 만들어 졌고, 직경은 1.9cm크기이며 징의 높이는 0.4cm 징의 두께는 1mm이며, 받침쇠의 직경 1cm이고 두께는 0.5cm이었다.(사진 12) 징을 박기 위해서 갑옷에 직경 2mm의 구멍을 뚫었으며 그 구멍을 주위에 소색의 실로 7~8개의 홈질로 마감처리하였다.

위 조사에 의한 복원은 다음과 같다.

1) 염 색

겉감은 (사진 1)과 동일한 장지화문단의 구입이 불가능하여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직물을 구입하였다. 실제 유물의 장지문 보다 문양의 크기가 작고, 각이 저있는 차이점이 있었다. 직물은 백색의 표면·정련된 것이었고, 유물의 염색이 황색계 염색(치자·황벽·울금)의 Sample와 비교한 결과 울금과 가장

유사하여 울금으로 염색하였다.

- i. 울금 300g을 메탄올(공업용) 1.5ℓ 비율로 항아리에 침전시켜 응달에서 7일간 방치하여 그 원액을 추출한다. (이때 원액은 노란색 Paint와 같다)
- ii. 원액 · 10% · 20% · 30% · 40%용액에 염색 후 철장액처리의 Sample 시험한 결과 유물은 10%용액후 철장액처리의 색과 가장 유사하여 원액에 물로 희석시켜 10%농도의 염액을 만들었다.
- iii. 염색한 직물을 염액이 직물에 얼룩없이 잘 착색되도록 백반용액에 약 5~10분 정도 담가둔다.(이때 염색할 직물은 백반용액에 완전히 침전시켜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며, 햇빛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백반용액에 완전히 침전되지 않은 직물이 햇빛을 받으면 황변하여 그 자리에 얼룩이 생긴다)
- iv. 백반용액을 꼭 탈수시켜 탁탁 대기중에서 털어 수분을 제거시킨 직물을 (ii)의 염액에 담그고 손으로 주무르면서 골고루 염액이 착색되도록 한다(옷감이 접힌 곳이 있으면 그 곳에 얼룩이 생기므로 신속히 옷감을 뒤집어 가면서 염색해야 한다.
- v. 염액이 직물에 골고루 착색된 후 염액을 꼭 탈수시킨 직물을 대기중에 탁탁 털어 수분을 제거시킨다.
- vi. 철장원액을 물로 희석시켜 10% 용액을 만든다.
- vii. vi의 철장용액에 v의 염색된 직물을 담가 역시 잘 주물러 착색이 골고루 되게 한다. 이때 iv에 의해 노랗게 염색된 직물이 갈색의 색조로 변화한다.(철장액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착색이 되게하여 착색된 후에는 빨리 맑은 물에서 행군다)

이렇게 염색된 직물의 Sample은 <표 1>과 같다. Sample시험과는 달리 전량을 염색했을 때는 그 색이 약간 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철장액 농도가 약간 진해진 결과와 같다. 유물의 색보다 약간 황색의 색조를 더 띠고 있다.

2) 봉 재

- i. 유물의 실측조사를 통한 본을 제도한다.
- ii. 본에 의해서 먼저 심지(心地)를 길(胴) · 소매(袖) · 셔(裻) · 무(襠)를 재단하여, 3장씩 2cm간격으로 각 부위의 누비방향-길과 소매는 식서 방향, 셔와 무는 사선에 평행방향-으로 6~7땀 1" 크기로 누빈다.
- iii. ii에 의해 누빈 각 부위를 연결 단계에서는 Reversible직물의 봉재법과 동일하게 한부위의 시점을 연결부위의 시점을 완성선으로 접은 다음 그 사이로 끼워 감침질 한다. 그 연결 순서는
 - ① 무와 무의 연결로 앞무의 시점을 뒷무의 누비사이로 끼워 감침질 한다.
 - ② 소매의 앞시점을 사이로 끼워 감침질한다.
 - ③ 길과 연결되는 소매와 무의 시점을 먼저 연결시킨 후 그 시점을 길의 누비

사이로 끼워 감침질한다.

④ 왼손방향의 뒷길의 시접을 오른손방향뒷길의 누비사이로 끼워 감침질한다.

⑤ 옆의 사선방향시접은 각 옆의 누비사이로 끼워 감침질한다.

⑥ 옆의 직선방향 시접을 앞길의 누비사이로 끼워 감침질한다.

이때 3점의 시접中 중간시접을 봉재상 짧게 처리한 후 연결하고, 감침질에서도 안·팍을 2번씩 해야한다.

iv. 곁감을 iii의 순서와 같이 연결시킨다.(명주바느질로 반박음질한 후 인두로 다려 시접을 꺾는다)

v. 안감은 유물조사에 의하면 곁감이나 심지 같이 각 부위를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각 부위의 시접을 심지에 시침으로 고정시켜 연결하였다.

vi. 곁감과 안·심지를 안끼리 마주보게 끼워 고정시킨후 소매부리는 곁감과 안감사이에 소색가죽Piping으로 끝처리하고, 그외의 밑단등의 끝처리는 곁감이 안·심지를 1번 감은 다음 공구르기한다.

vii. 2개의 깃중 아랫깃을 길에 연결시킨다.

viii. 윗깃은 U자형의 깃으로 안깃은 갈색운문단이고, 그 안에 조각천 -소색과 하늘색(쪽염색)의 조각을 연결한-을 심 대응으로 하고 갈색가죽의 곁깃은 소색명주실로 박음질하였다.

ix. 소색가죽으로 매듭과 고리를 만들어 단추를 만들어 소색명주실로 고정 시킨다.

○ 堂下官 文官 冠服 <사진 16><복원도 4>

문관의 의복에는 바지(把持), 저고리(赤古里), 관복(冠服), 각대(角帶), 신(靴), 버선(襪), 사모(紗帽)중 바지·저고리는 앞의 병마절도사의 것과 동일하며, 관복은 현재 강화도에 보존중인 것을 복원하였다.

團領이란 直領에 대응하는 말로써 둥근깃을 뜻한다. 團領의 기원·변천·한국의 수용등은 曹五順의 《團領에 관한 연구》를 참고로 하고 여기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曹五順은 「조선에 있어서 단령은 초기는 明制를 따랐으며 中·後期이후는 그 독창성을 나타내었다」 曹五順의 조선시대 단령의 형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초기의 단령은 깃의 파임의 정도가 좁고(12cm내외)소매에서 진동이 수구보다 넓으며 여밈에 있어서 매듭단추나 가는끈을 사용하고 홉겹이었던 것이 후기에 있어서는 단령의 파임이 깊어지고(16~20cm) 안감에 안깃을 달았으며, 소매에 있어서도 넓은 두리소매가 달렸고, 무를 뒤로 접어서 고정시켰고 여밈에 있어서도 옷고름-긴고름은 곁감1 안감1의 2장고름으로 짧은 고름은 곁감의 1장고름이었고, 겹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강화에 보존되어있는 관복(단령)은 형태에 있어서 파임의 정도가 약22cm이며, 안감에 달린 안깃과 둥근

겉것으로 구성되었으며, 안것에는 동정이 안것과 함께 봉재되어 있으며, 소매도 두리소매이며, 무에 있어서도 무를 뒤로 접어 스티치로 고정하였고, 여밈은 고풍있고, 안감이 모두 소실되고 겉감만이 남아 있으나, 색상은 겉감이 갈색에 가깝게 보이고 있으나 습기·공기등의 여러요인으로 인해 두록색이 변색된 것으로 추정되며, 안감은 청색(쪽염)으로 염색되었고, 옷감은 주항라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그 구성이 조선말기의 것과 일치하고 있어 조선말기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복원과정에 있어서도 소실된 부위는 조선말기의 관복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복원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염 색

- i. 겉감은 표백·정련된 백색의 주항라를 구입하여 염색하기 전 풀기를 제거시키기 위하여 비눗물에 삶았다.
- ii. 겉감은 두록색이었으나 외향련·쑥등으로 Sample Test한 결과 쪽염 후 철장액처리의 색과 유사하여 쪽염을 새행하였다.
- iii. 쑥(키가 20~30cm된)의 잎과 줄기를 잘라와 물에 행구어 이물질 제거시킨 후 커다란 솥에 넣고 삶아서 원액을 추출하였다(이때 많은 양을 염색해야 하므로 쑥이 솥이 죽으면 계속해서 쑥을 넣어서 원액을 만든다.)
- iv. iii을 고운형겉에 받쳐 원액만을 추출한다.
- v. 호발된 주항라를 희석된 백반용액에 5~10분간 담가 두었다가 꼭 짜서 대기 중에 탁탁 털어 수분을 제거 시킨 후 원액에 침전시켜 약한 열로 끓인다.
- vi. 이때 노란색(연두빛을 띤)이 착색된 것을 웅달에서 건조시킨다.
- vii. 노란색이 선명하게 착색되지 않았을 경우는 v·vi를 1회 반복한다.
- viii. 건조된 주항라를 맑은 물에 담근후 수분을 제거시킨 다음 10%의 철장액에 담근다. 이때 노란색이 쪽색으로 변색한다.(이 경우 철장액의 철의 농도가 진하면 쪽색이 국방색에 가깝게 변색한다) 철장액이 약간 강하여 유물의 색보다 국방색의 색조를 더 띠고 있다.

2) 봉 재

- i. 유물의 실측조사를 통하여 본을 제도하였다.
- ii. 소매와 끝등을 연결하고 솔기는 소매쪽으로 처리하였다.
- iii. 길에 ii를 연결하고 시접은 소매쪽으로 처리하였다.
- iv. 길에 무를 연결하고 그 솔기는 길쪽으로 처리하였다.
- v. 앞길에 안섷과 겉섷을 연결하고 그 솔기를 안섷은 길쪽으로, 겉섷은 섷쪽으로 처리하였다.
- vi. 뒷길을 연결하고 그 솔기는 오른손쪽으로 처리하였다.
- vii. 안·뺨의 겉을 마주보게 놓고 수구와 무를 연결하여, 그 솔기를 겉감쪽으로

처리하였다.

- viii. 안·뺨을 어깨선에서 접어 4겹으로 소매의 배례를 연결하여 깃을 창구멍으로 하여 뒤집는다.
- ix. 무를 정리하여 뒷길쪽으로 스티치로 박는다.
- x. 단령을 겹섶에서 시작하여 겹감에 단다.
- xi. 직령을 안섶에 단다.
- xii. 밑단을 접어 처리한다.
- xiii. 안고름과 겹고름을 단다.

IV. 복원과정에서의 문제점

복원복 제작과정에 있어서 여러문제점들이 드러났다.

- i. 실제 유물의 복원을 위한 고증과정-문헌참고 및 그 시대로 추정되는 현존유물의 조사와 조사자료-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였다.-
- ii. 직물에 있어서는 각 유물의 재질-꺾기·문양·폭등-과 동일한 것을 구입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구입함이 불가능 한 것도 있었다.-
- iii. 염료는 염료로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한방약재로 재배되는 것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 재배기간이 오래된 것 혹은 건조상태등으로 염색이 고르지 않아 Sample Test와 동일하게 염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그 재료의 구입이 불가능 한 것(쪽)도 있었다.
- iv. 의복전시에 있어서도 마네킹이 의복보다 크게 제작되어 그 의복 당시의 착복 모습(실루엣)을 잃게하였다. 따라서 의복을 착복시키는 마네킹은 의복제작자와 동일하거나 긴밀한 관계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거복식의 복원은 다른 유물의 경우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 분야별-염색·직조·봉재등에-에 전문화 인력 및 복원시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완벽한 고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강화역사관 전시의복 복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등으로 다소 시정되어야 할 점이나 고증에 따른 재료가 사용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할 것이며, 본 보고서에는 주로 갑옷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는데 기타 소품등에 관한 것을 다음 기회에 보충하고자 한다.

〈표 1〉 사용된 직물의 Sample



ㄱ) 모 시 (조각공의 바지, 저고리)



ㄴ) 울금염색된 장지문양단 (갑옷의 걸감)



ㄷ) 먹으로 염색된 명주 (전복)



ㄹ) 소색 무명 (갑옷의 삼지)



ㅁ) 발염된 명주 (천덕 걸감)



ㅂ) 소색 명주
(갑옷의 안감·문무관의 바지·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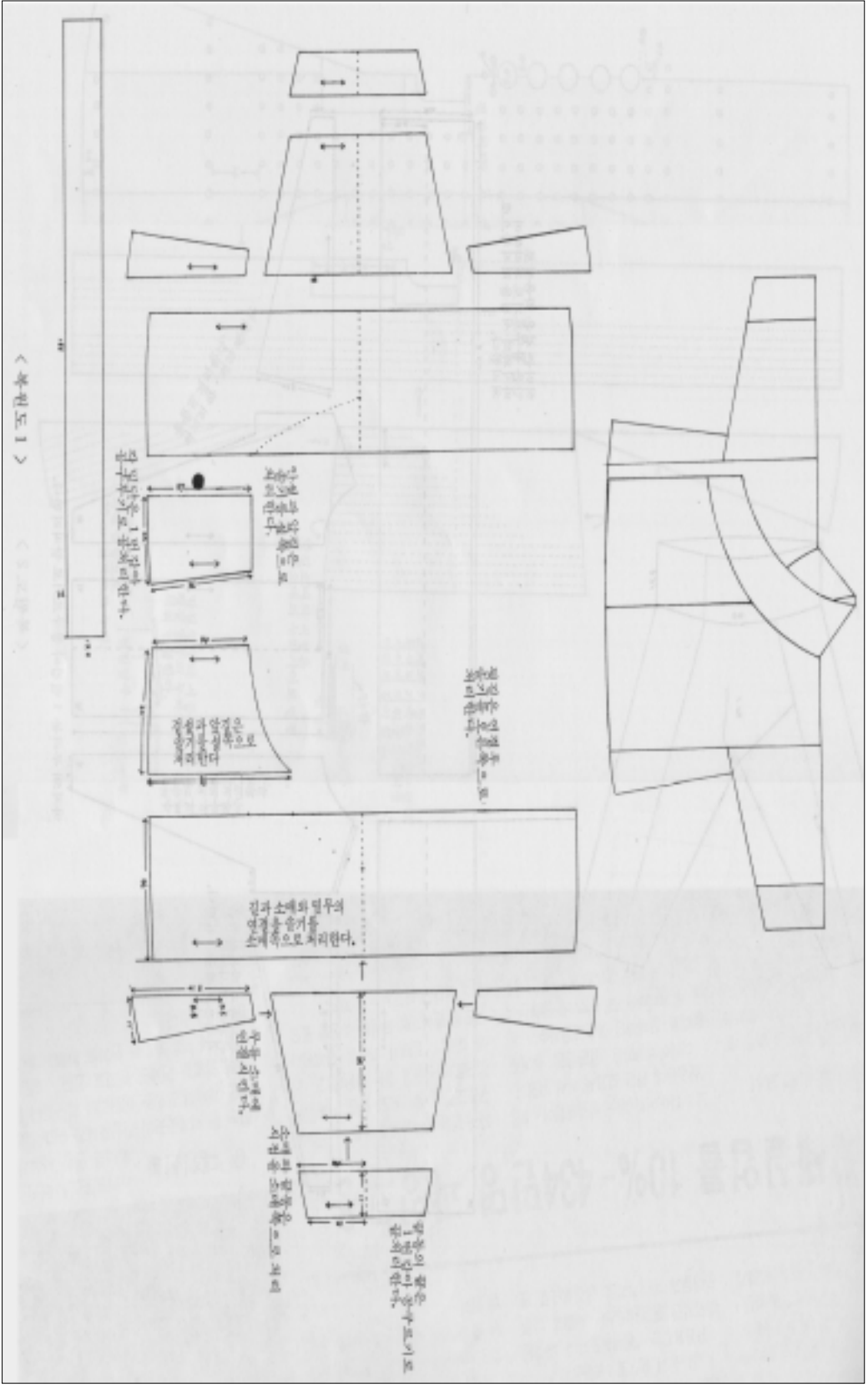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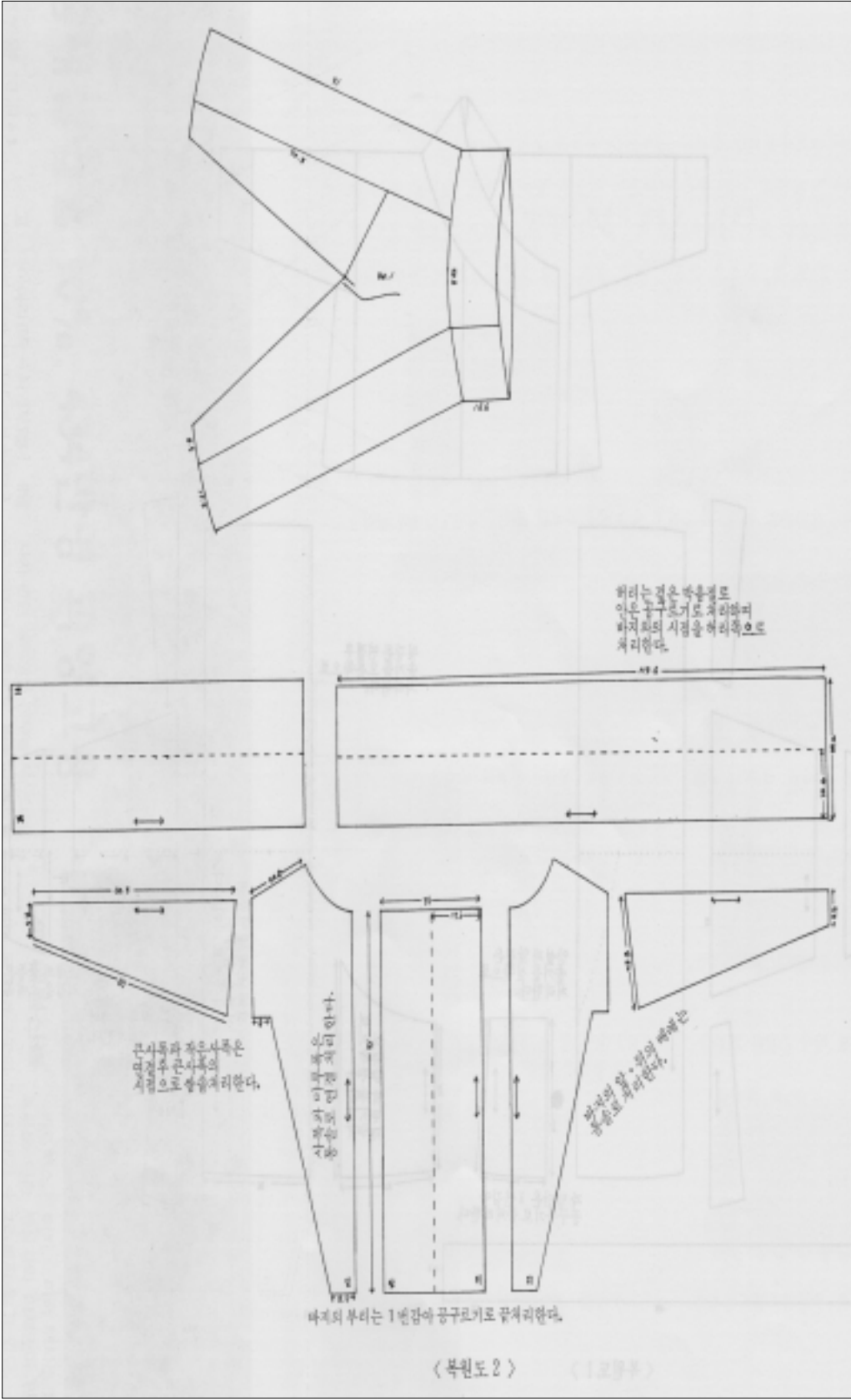
ㅅ) 쪽염색 주향라 (관복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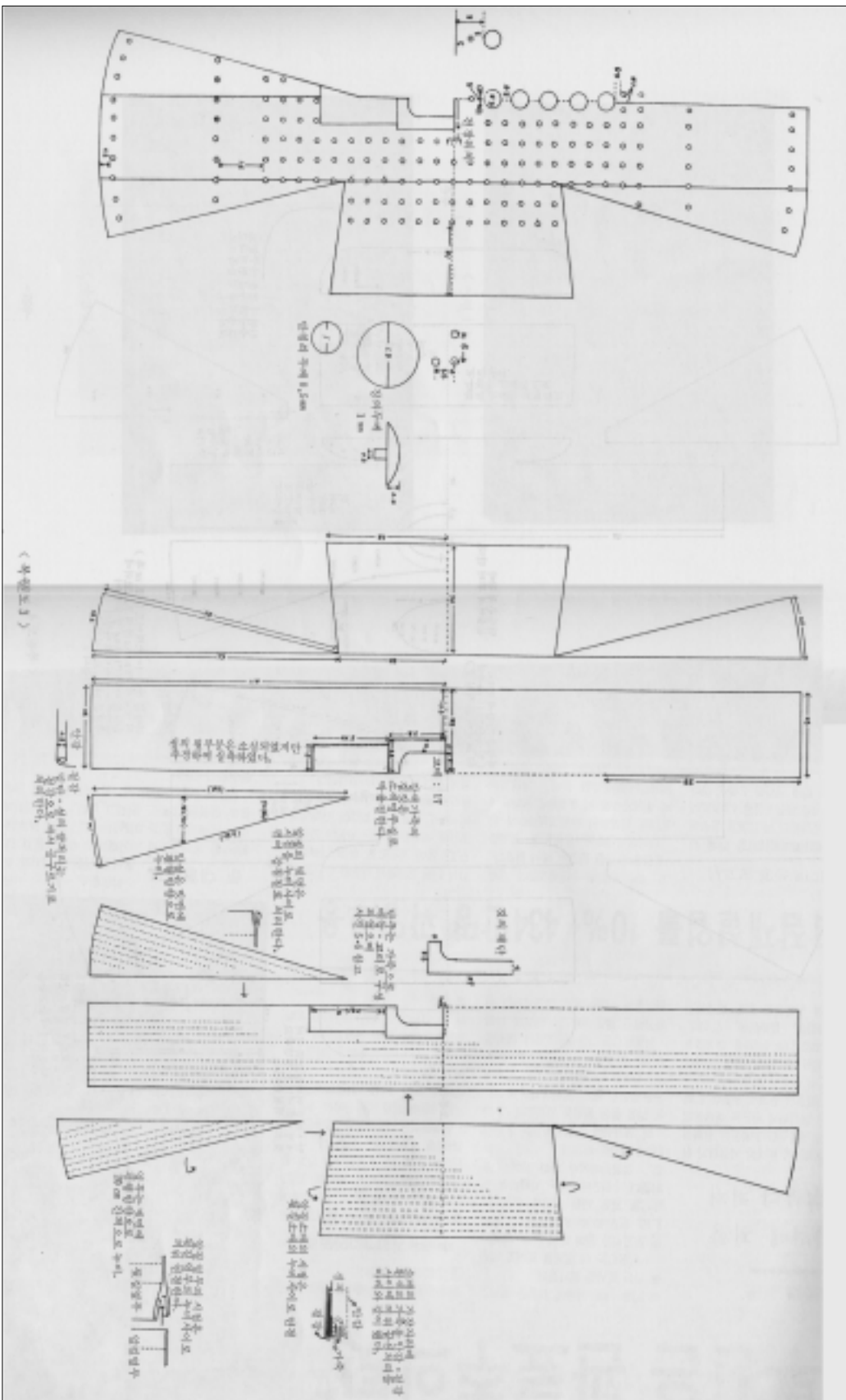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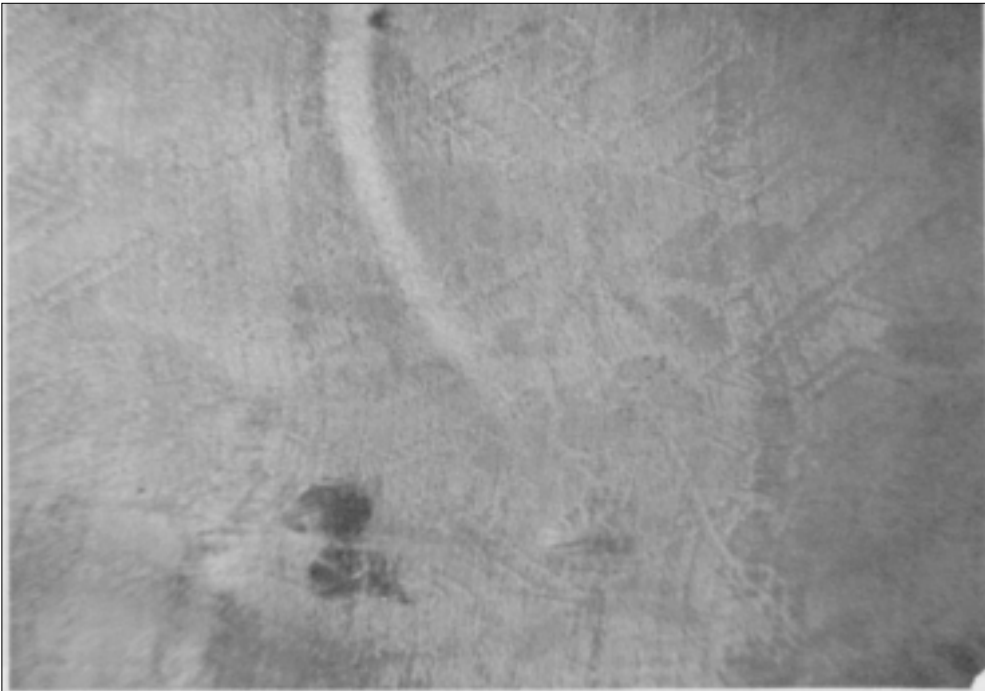
ㅇ) 청색 주향라 (관복안감)

< 5월 5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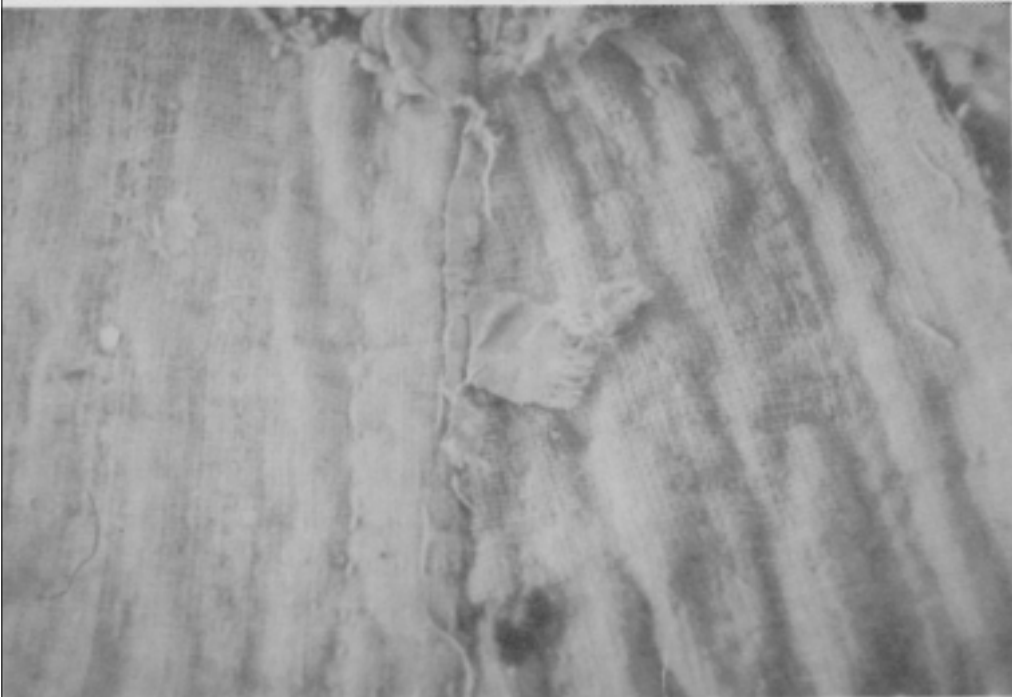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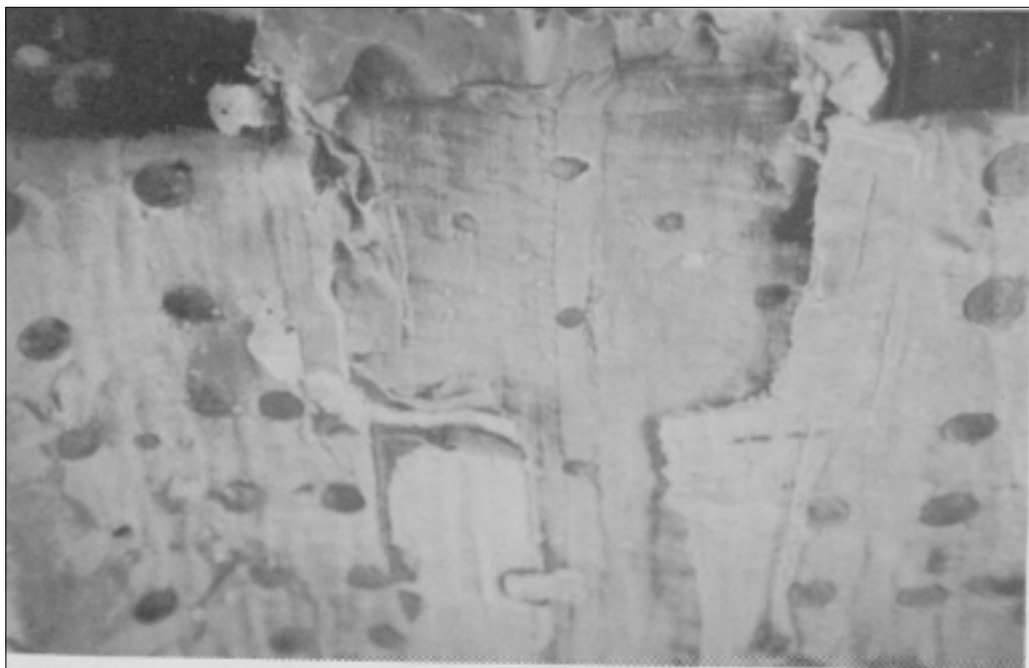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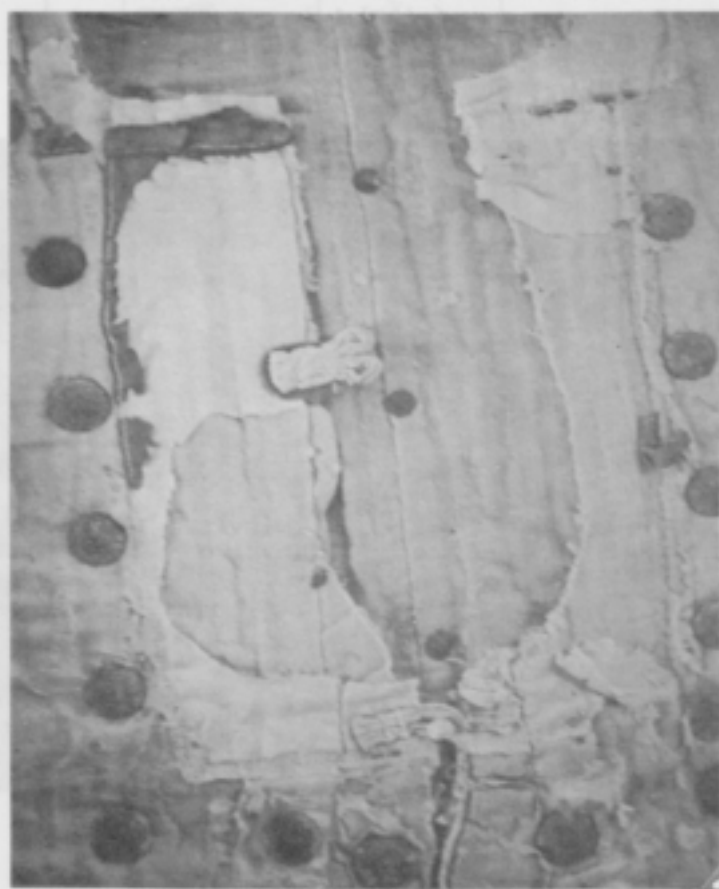
< 사진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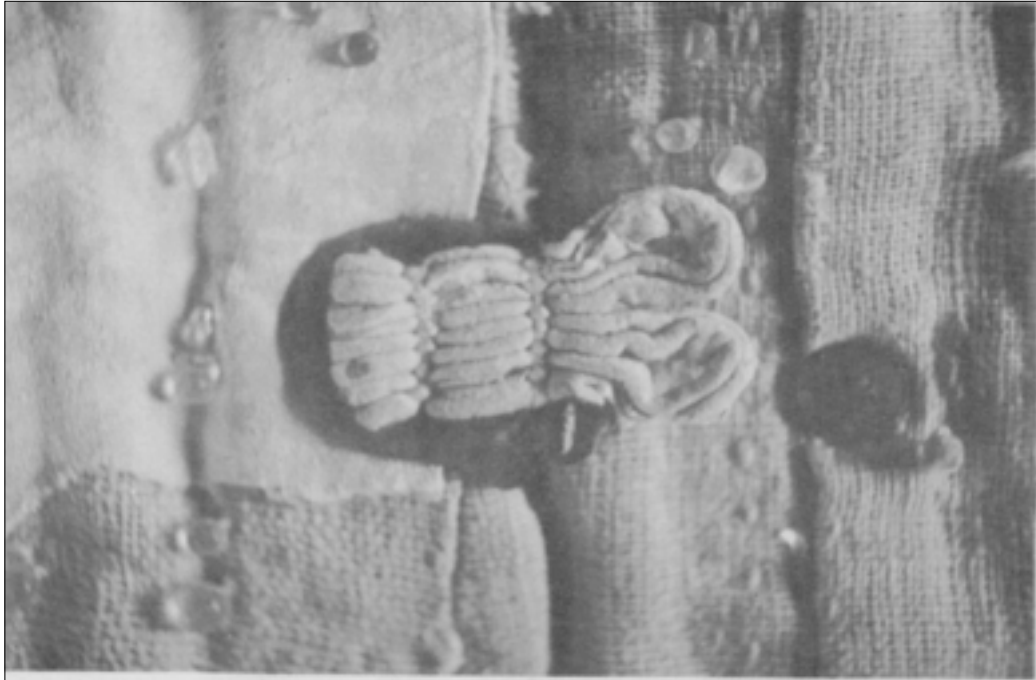
< 사진 2 >



< 사진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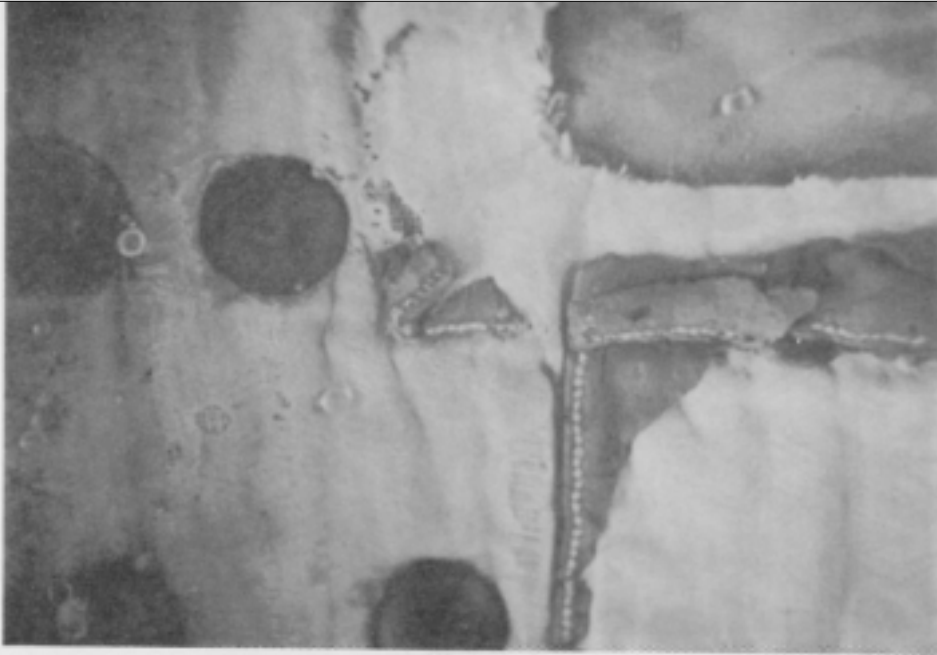
< 사진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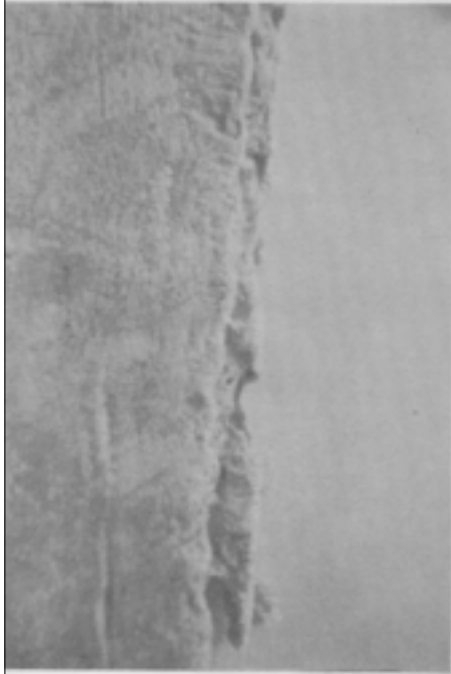
< 사진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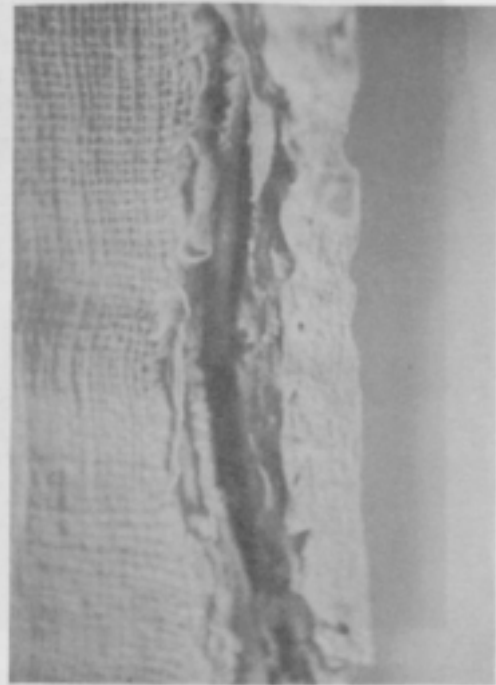
< 사진 6 >



< 사진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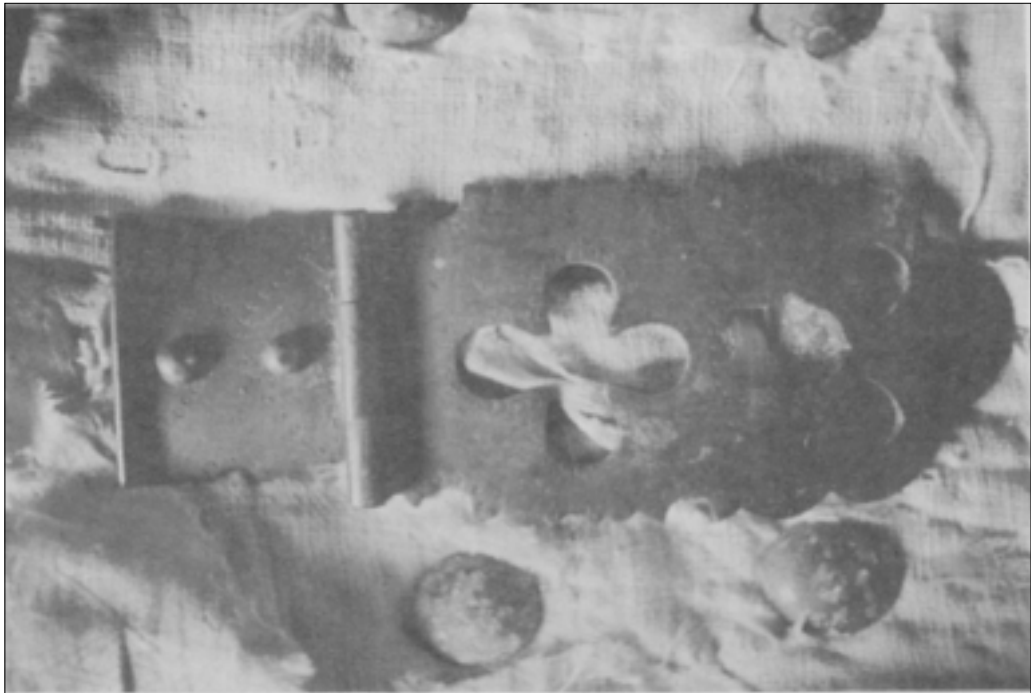


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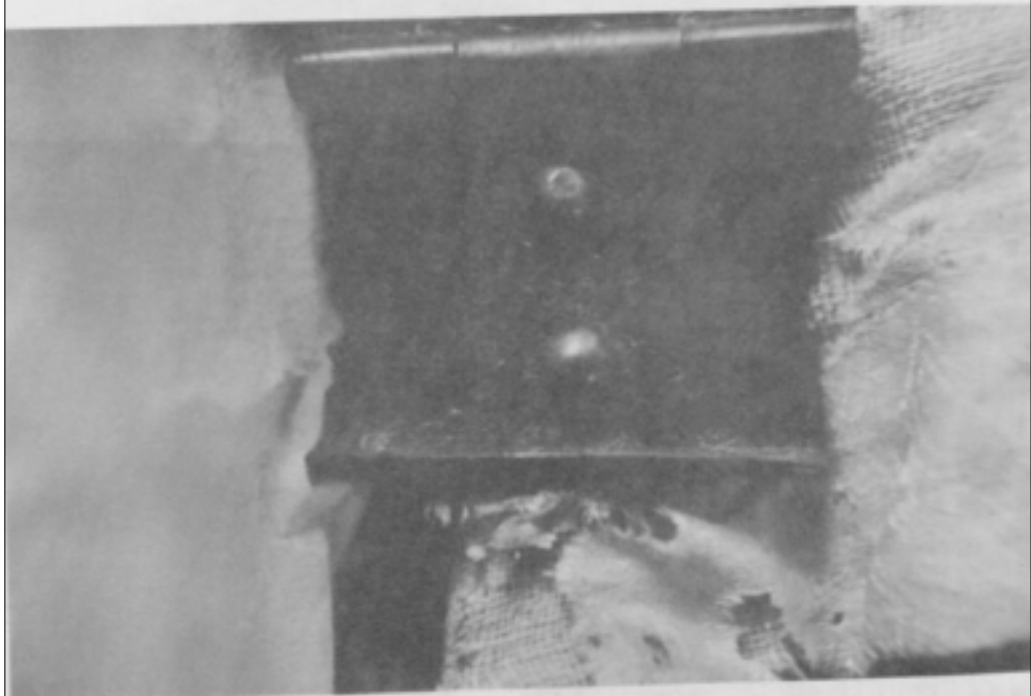


안

< 사진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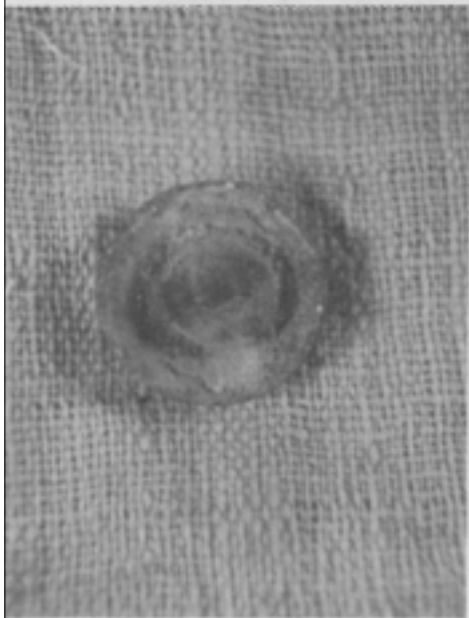
< 사진 9 >



< 사진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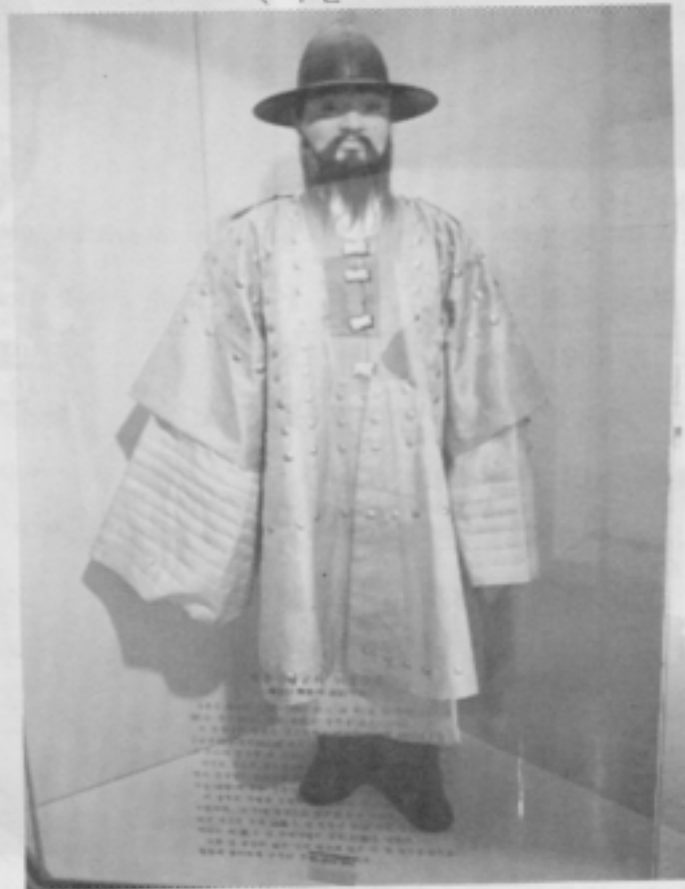
< 사진 11 >



< 사진 12 >



< 사진 13 >



< 사진 14 >



< 사진 15 >



< 사진 16 >